"해남~진도 송전선로사업 즉각 철회하라"

"자연경관 해치고 주민 정주여건 위협"

진도군의회, 국회·한전 등에 성명서 전달

한국전력의 해남~진도 간 송전선로사업이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정주여건까지 위협한다며 철회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도군의회는 이 사업과 관련 지난 19일 의원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20일 성명서를 내고 "한전은 '154킬로볼트 화원~진도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와 지식경제부, 한전에 각각 발송했다. 〈사진〉

이날 설명서에서 군의회는 "송전탑 18기가 들어설 부지 인근은 군의 하나뿐인 관문이자 세계 해전사에 빛나는 이 충무공의 명량대첩지, 망금산 관방성(전남도 지정 문화재 제204호), 강강술래터 등 호국유적지가 있으며, 앞으로 도시민들의 안식처가 될 전원마을이 조성될 지역"이라며 "한전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관광객과 인구 유입 급감으로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한전 측이 사업 철회를 안 할 경우 군민들과 함께 사업 저지 투쟁 등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천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을 두고 한전과 진도군의 갈등은 깊어질 전망이다.

한전은 오는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해남 화원~진도 군내면 변전소까지 14.54㎞에 대형 철탑을 건설할 예정이다. 한전은 주민 반대 여론에도 전원 공급 시설 복선화를 위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영농기술교육 받는 신참 농민들 신안군 귀농·귀촌교육에 참가한 신참 농민들이 지난 1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기술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센터는 물론 선도 농가에서 품질관리,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로 실습교육을 받으며, 매달 80만원의 교육훈련수당을 받는다. 선도 농가에게는 매달 40만원씩의 강사수당이 지급된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전남도, 오늘 '암 예방의 날' 행사

전남도는 '제6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21일 오전 10시 30분 해남군 문화회관에서 기념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행사에선 암 예방 서포터즈 및 지역 주민, 전남지역 암센터 관계자, 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암 예방사업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암 서포터즈 선서, 국민 암 예방수칙 이행 등을 결의한다.

특히 암 예방홍보 가두 캠페인을 실시, 암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없애고 올바른 상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이해구 전남도 보건한방과장은 "암은 현재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두려운 질환이지만 식습관 개선, 금연, 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으로 70% 이상 예방이 가능하므로 암 예방 수칙 등을 성실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암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올해 26만여 명에 대해 암 검진을 실시하고 암환자 의료비 35억원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목포항만청, 완도 비견도 수중 암초에 등대 설치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20일 "완도군 금당면 비견도 남방해상 수중암초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등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대의 구조는 높이 15m, 직경 5m의 원형 콘크리트조로 이달 착공해 오는 9월 완공할 예정이다. 설치 위치는 완도군 신도 및 충도에서 금당수도로 연결되는 교차지점으로, 통행하는 선박들의 중요한 물표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등대가 설치되는 금당수도 주변 해역은 양식장 등 지역 어민들의 주요 어업활동지역으로 어민들의 어업활동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신안, 나무병원 확대 운영

신안군이 조경 가치 있는 나무 이식과 관리하는 나무병원을 확장 운영한다.

나무병원은 지난 2007년 압해읍 신용리 3만9873㎡ 부지에 조성됐으며, 소나무, 편백 등 1만5000여주의 나무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

이 병원에서 기른 나무를 가로수 등에 식재하면서 지금까지 11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올해 군은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해 소나무, 감나무, 배롱나무 등 1600여주의 나무를 기증받아 이식 및 사후관리비 등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친환경 해남쌀 서울 간다

마포구 학교급식 공급

해남 친환경 쌀이 서울 마포구 학교 급식으로 공급된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국 12개 친환경쌀 생산업체가 참가한 서울 마포구 학교급식 품평회에서 해남인수영농조합이 2위를 차지해 2년간 학교급식 친환경 쌀을 공급할 예정이다.

130여명의 학부모와 구청 관계자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품평회에서는 친환경 쌀에 대한 관리 및 유통 시스템 심사, 밥맛 등의 시식평가 등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뤄졌다.

특히 해남 쌀은 밥맛에서 찰기와 윤기가 많은 점, 친환경쌀의 위생적인 관리와 체계적 유통, 농촌체험활동 군 지원 등의 시책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군은 지난달 광주시 학교급식 품평회에서도 2개 RPC가 25개교에 연320t의 친환경쌀 공급업체로 선정됐고, 서울 마포구, 관악구, 서초구 소재 40개교 방문 판촉 활동을 벌인 바 있다.

군은 서울 소재 340개교에 시식미를 전달하는 공격적인 마켓팅 활동으로, 올해 모두 170개교 학교급식 납품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대불산단 고용촉진지구 지정을"

목포상의도 촉구

목포상공회의소가 대불자유무역지구 확대와 함께 대불산단을 고용 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목포상의는 20일 "목포권이 국제화시대 동북아 거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불자유무역지구가 확대되고 대불산단이 고용 촉진지구로 지정돼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이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호남 상의 회장은 "목포의 관문인 목포 신항은 최적의 항만여건을 구비하고 있고 배후단지도 잘 조성돼 있어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목포신항 배후부지개발은 물론 대불자유무역지구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중소조선소 뿐만 아니라 대불산단 조선협력업체들이 수주난과 물량 부족으로 휴·폐업이 늘어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대량실업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대불산단을 고용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말한다. 저렴한 부지임대료·무관세 및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고용개발 촉진지구는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지역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재난 지역'으로 지정, 한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실직근로자 전직 지원 장려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전북

섬진강댐 개발 마을 진출입로 침수

정읍 산내면 주민 교통대책 마련

정읍 소재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에 따라 댐 수위가 올라가 마을 진출입로가 없어질 위기에 있던 정읍 산내면 종성리 주민들의 생활불편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읍 산내면 종성리 986번지 일대 토지 소유주와 거주민 20여명은 1963년 준공된 섬진강댐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2003년시작했던 재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수위가 종전보다 5m 이상 상승해 마을 진·출입로가 침수될 것으로 예상되자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조정 협의와 현장조사를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19일 오후 정읍시 신내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과 정읍시, 전라북도,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창 상임위원의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마을 진·출입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한 중재안에 따라 정읍시는 통행로 단절에 따른 교통 대책과 보상방안을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 후 오는 6월까지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전라북도와 함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관리청 및 댐 사용권자와 협의해 교통대책 마련에 필요한 토지 사용 및 공사를 위한 댐 운영 수위 조절 등을 협조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지리산 천년송 복제 유전자 보존

〈천연기념물 424호〉

남원시·국립산림과학원·문화재청 공동

천연기념물 제424호 지리산 천년송〈사진〉에 대한 복제, 유전자 보존 작업이 추진된다.

남원시, 국립산림과학원, 문화재청은 20일 "지리산 천년송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DNA 추출 및 복제나무를 만들어 유전자은행에 보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리산 천년송은 임진왜란 전부터 와운마을 뒷산에 자생해 왔다고 알려졌으며 20m 간격을 두고 할아버지, 할머니 나무가 이웃하고 있다.

할머니 나무를 '천년송'이라 불리고 있으며 매년 음력 1월10일이면 마을 주민들이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우산을 펼쳐 놓은 듯한 수형이 아름다운 천년송은 와운마을과 관련된 전설 등 노거목의 희귀성, 민속적 가치가 커 2000년 10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천년송의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 이용되는 방법은 무성증식법인 접목을 이용한 유전자 복제기법으로 똑같은 복제나무를 만들어 보존하게 된다.

유전자은행(또는 DNA Bank)은 자손에게 전해줄 생물체 유전정보인 DNA를 보존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문화재청과 협조해 천연기념물 노거수의 보존 차원에서 잎, 뿌리, 꽃가루 등 식물체 조직과 그로부터 추출된 DNA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유전자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순창, 방화리 농가 물 걱정 던다

농촌용수개발지구 확정

246억 들여 저수지 보강

구림면 농가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방화지구농촌용수 개발사업이 2013년 신규사업지구로 확정됐다.

방화지구(문치제, 금상제) 농촌용수개발사업은 246억원을 투입해 구림면 관내 2개소의 저수지를 보강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1865t의 농업용수와 13.4km의 용수시설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영농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구림면 방화리 일대 600여 농가는 용수원 부족으로 소형관정 등을 이용해 경작해 왔으나 최근 지하수 고갈 등으로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연이어 대규모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농업인들에게 충분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됐다"며 "농업인의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농업분야의 예산 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정읍시 이통장협 정총… 임기문제 등 논의

정읍시 이·통장협의회는 지난 18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23개 읍·면·동 협의회장 및 임원진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제1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임기 2년, 1회 연임으로 조례상 규정돼 있는 이·통장의 임기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행정의 최일선 조직으로서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연찬회에 관련된 활발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정기총회 후 이어진 김생기 시장과의 간담회에서는 농축산 보조사업, 수해복구, 도로포장 등 민생문제 10여건과 장학숙 건립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건의와 답변이 있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단신

정읍 신태인읍, 학교 방문 주민증 발급 서비스

정읍시 신태인읍이 평소에 학업 때문에 읍사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특수시책을 추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태인읍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만17세로 생일이 도래한 자) 대부분 학생들로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 방학기간에 읍사무소를 찾아와 발급신청을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이 시책을 마련했다.

신태인 지역에 있는 신태인고, 왕신여고, 인상고등 3개 고등학교를 읍사무소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십지문을 채취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도와주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군산시, 침수 취약지 차수판 설치 신청

군산시는 침수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내 일원의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을 우기 전 완료하기로 했다. 차수판이란 건축물 내부로 일시에 밀려들어오는 물을 막기 위한 이동식 시설물로 침수피해 확산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군산시는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군산시의회 간담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지원금액 등을 확정해 오는 2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지하실 침수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건축물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군산=박금석기자 · 전북취재본부장 no

전주시 '전통 장류 아카데미' 개설

전주시가 전통장류의 전승을 위해 콩 고르기, 삶아 메주 만들기, 발효(띄우기), 장 담그기, 숙성 등 전 과정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주시 전통 장류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25명의 시민이 내년 초까지 7회에 걸쳐 실습중심교육을 실시하고 참가자 전원이 실습한 장류를 가족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처음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한다.

교육 장소는 완산구 원당동 혜미강 발효식품 생산 사업장으로 교육생들은 메주 선별법부터 소금물 농도 맞추기, 장 발효법, 장 관리 등 전통방식의 장담기 방법을 전수받을 예정이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순창, 지방세 징수율 95.3% 역대 최고

순창군이 2012년 지방세 결산결과 지난해 징수율 94% 대비 1.3%나 높은 95.3%의 실적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또 체납 이월액도 지난해보다 6100만원이 적은 4억7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세 징수실적 95%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는 이번이 역대 처음이다.

이같은 결과는 각종 수상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전라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시작으로 도세 부과징수 평가에서 장려, 체납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체납세 없는 읍면동으로 3개면이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